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뉴스레터

vol.2
March 1998

CONTENTS

- p1 ● 피터·F·드락커 박사가 리쓰메이칸대학아시아태평양대학에 보내는 메시지
- p2 ● 크레티엔·캐나다 수상,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취임/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배워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 p3 ●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식
- p4 ●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식/아시아태평양대학의 구상-제2/‘리쓰메이칸’ 소식
- p5 ● 팽창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각국 방문 그룹의 보고내용으로부터
- p6 ● Ritsumeikan & Beppu City NEWS

A JOURNAL REPORTING PROGRESS OF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2000년 개교 예정

피터·F·드락커 박사가 리쓰메이칸대학아시아태평양대학에 보내는 메시지

경영학, 문명평론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F·드락커 박사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설립취지에
찬동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 피터·F·드락커 박사
좌: 사카모토 카즈오(坂本和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학장 예정자

What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is going to do—to integrate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advanced education—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the world economy and world society. It promises to provide the region with the human foundation for its economic success.

My best wishes,

Peter F. Drucker
Claremont, California
February 9, 1998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교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융합하는 일은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Peter F. Drucker)

P R O F I L E

Peter F. Drucker

미국 크레아몬트대학원대학 교수, 경영학, 문명평론의 세계적 권위자.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남.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으로부터 국제공법 박사학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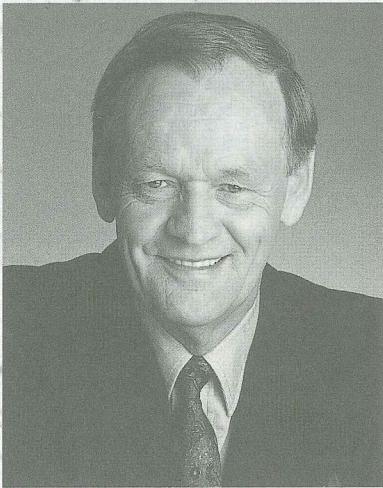
나치스의 압박을 피해 영국으로 가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감. 1939년 『경제인의 최후』, 1942년 『산업인의 미래』를 저술하여 나치스를 분석한 작품으로서 호평을 얻음. 또한 1945년 GM에 대한 조직 혁신을 분석한 『회사란 개념』을 펴내 당시 기업 혁신에 영향을 줌.

그 후, 1969년 『단절의 시대』, 1974년 『매니지먼트』, 1976년 『보이지 않는 혁명』, 1985년 『이노베이션과 기업가 정신』, 1989년 『새로운 현실』, 1990년 『비영리조직의 경영』, 1993년 『포스트 자본주의사회』, 『이미 일어난 미래』 등 많은 저서를 발표. 그 때마다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현재에도 활발히 저작 활동을 펴고 있다. 그의 저서 중 대다수가 이미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1971년부터 크레몬트대학원대학 사회학 및 경영학 교수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크레티엔 · 캐나다 수상,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취임.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여러 가지 협력과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국 원수와 주일대사,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 여러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새로이 진·크레티엔 캐나다 수상이 명예위원으로서 취임을 수락했습니다. 각국 주일대사를 포함하여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참가한 사람이 금년 3월 현재 200명에 달했습니다.

I am pleased to accept your offer to serve as Honorary Advisor to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Ritsumeikan's objective of promoting International academic collaboration through bringing together academics and students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s both intriguing and compelling. The region encompasses a vast diversity of cultures, languages and races. Just as nations are now developing an economic association, through APEC, to bridge these differences, so too must universities bring greate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to this rich, but complex regional diversity. It is to your considerable credit that Ritsumeikan has set itself what should be a most rewarding goal.

I congratulate you on the formation of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Jean Chrétien, Prime Minister of Canada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명예위원으로서의 취임을 꽤히 수락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폭넓게 연구·교육자와 학생을 모아 국제적인 학술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리쓰메이칸의 목적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깊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아주 다양한 문화와 언어,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현재 여러 국가가 APEC를 통해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이 지역내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풍요로움과 복잡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이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리쓰메이칸이 고매한 목표를 내걸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캐나다 수상 진·크레티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배워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학교법인 리쓰메이칸 상무이사(교학 담당)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부학장 예정자
이학박사 · 교수 · 산업기술사 전공

지도 유지(慈道裕治)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중국과 인도 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속해 있는 곳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자연을 사랑하는 이 지역을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역과 나라가 해역을 이용한 교류로 다면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문자와 문화를 수용하여 그것을 융화하여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 근대적 사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 독자적인 문화를 탄생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성장을 향한 기본적인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엄정한 반성, 가치관의 상극과 융합, 신가치 창조 등 새로운 교류와 융합, 그리고 자립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급선적 과제와 세계화해가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요구되는 보편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개척하고 이 지역의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젊은이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 캠퍼스에서 배워야 할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2000년 4월의 개학을 목표로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학으로의 안내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설치위원회 사무국장
공학박사·교수·정책학전공

나카가미 켄이치(仲上健一)

'아시아태평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막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정치, 경제, 문화, 학문이 구미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세계의 중심무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아름다운 자연·생태와 다양한 문화, 가치관, 언어, 종교, 사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경제성장과 다이내믹한 발전을 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세계의 거대도시(인구 500만 이상)가 대부분 아시아지역에서 출현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생동감 넘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사회 시스템, 지역 시스템의 독자성과 공통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인류사회의 지속적·평화적 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 ② 인구증가를 예측하면서 인간의 생존환경, 특히 거대도시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역 시스템의 구축과 사회자본등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소식



의 정비를 충실히 행하는 일.

- ③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성을 기본을 둔 산업(정보 미디어·관광 등)의 창조와 전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일.
- ④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니지먼트의 혁신을 도모하고 구미적인 경영수법과 일본적인 경영수법의 특징을 도입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기업경영에 부합하는 매니지먼트 수법을 개발하는 일.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해 내려온 개별학문영역과 지역연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학은 '다양성과 독자성'·'공생과 발전'·'네트워크와 교류'에 기본적인 시점을 두면서 '정책지향 오리엔티드'·'프랙티컬 오리엔티드'의 다이내믹한 학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이 탄생합니다. 이곳에서 장래를 짚어지고 나갈 세계 50개국 이상의 리더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학'에 대한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교수로부터의 메시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교수로부터의 메시지

김정현(金政炫)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설치위원회 고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소장(객원교수)
공학박사 전 환경청 차장

지금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음의 세기를 재촉하고 있는 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밀려 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 더 길게는 1000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된 고도의 하이텍 사회입니다. 단순 작업이나 위험한 일들은 컴퓨터가 대신하고 인간은 '인간다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리쓰메이칸이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을 새로이 설립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 4월에 개교할 예정인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은 생활, 문화, 언어, 종교, 사상 및 사고방식이 서로 다른 세계 50개국으로부터 매년 400명씩 모집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인 학생 400명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상호이해를 깊이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미지의 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간사회 창조'로 세계의 항구적 평화 구축과 인간사회의 영원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중견인물이 양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대학 교육은 대부분이 논리, 기억, 분석 등을 담당하는 원쪽 뇌의 활용에만 편중되어 있었지만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은 상상력, 창조력, 직감력 및 실행력 등을 움직이게 하는 바른쪽 뇌의 활용도 동시에 중요시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이로써 불확실성과 애매함 등도 합리화시키는 능력을 키워서 모든 분야를 몸에 익혀 거시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는 일류대학이 수십개 있으며 이들 대학은 수백년의 역사와 그 대학의 졸업생들은 사회에 나가 지도적 위치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은 신설 대학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학보다 더욱 훌륭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추천입학, 장학금, 그리고 인턴십과 취직으로 연결되는 일관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특급 대학으로써 세계 속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학교"

샤تها·부산·버마 박사

자와하랄·네루대학(인도) 명예교수
동아시아언어센터 전 교수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와류(瓦礫)과 전쟁, 유혈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들은 금세기에 두번의 세계전쟁을 체험했고 핵무기와

그 밖의 살상무기를 개발했으며, 경제적 불균형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더

불어 금후 보다 나은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와 국제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도철학에서는, 세계인류가 한 가족으로서 평화, 행복, 번영 가운데에 살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회간의 상호이해를 돋우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의 틀 속에서 무엇보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 구축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시아태평양대학이 이러한 인식을 드높이고 21세기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거점지로서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잘 부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대학의 새로운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젊은 인재가 신대학을 더욱 살지게 하고, 아울러 평화와 협조, 우호가 중시되는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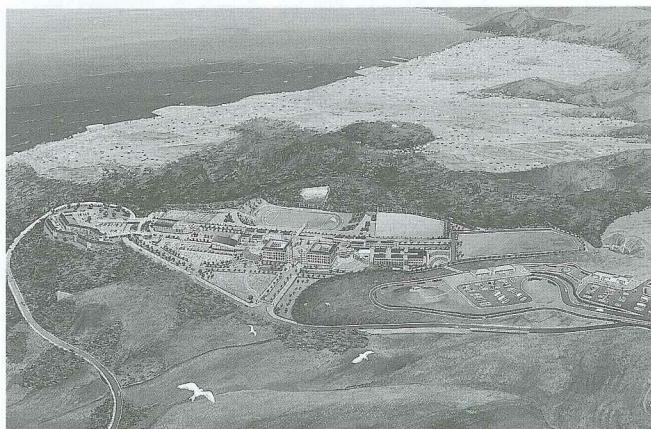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대학의 구상-제2

1997년 10월 18일, 캠퍼스 조성공사 기공식을 행하고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제공사가 거의 끝나 캠퍼스 부지의 전체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APU 캠퍼스는 교육, 학습, 연구구역과 학생들의 제활동구역, 생활구역 등이 잘 조화된 장기간체계형 캠퍼스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의 공생 또한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캠퍼스 입구 부근은 희귀종 식물의 이식·보존지역으로서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중앙광장으로부터는 벵푸만(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설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

으며 다언어 라운지 등이 배치되어 학생간의 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고안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정보기기를 다수 배치하는 등 멀티미디어를 구사한 정보발신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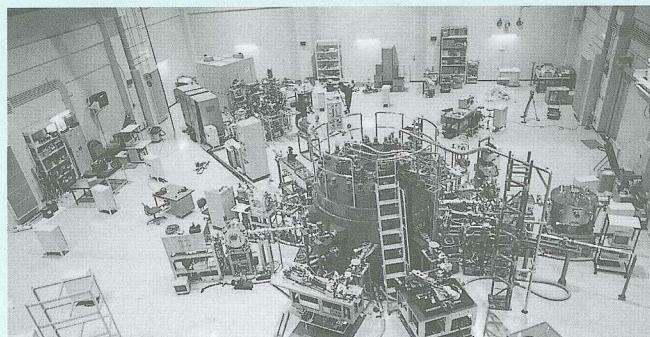
동시에 지역을 위해 개방된 구역도 있습니다. 홀과 그라운드를 이용한 갖가지 이벤트와 강연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으로의 개방과 교류를 위한 중개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최첨단을 달리는 리쓰메이칸의 산관학(產館學) 교류사업

‘리쓰메이칸’ 소개

리쓰메이칸대학은 교육·연구 정책으로서 ‘국제화’·‘정보화’와 함께 ‘개방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로자 교육과 시민강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대학에 대한 사회의 보다 많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실현하고자 최근에는 산관학 교류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탁연구, 기부연구와 기부강좌, 협정과목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사회와의 교류의 장으로서 ‘리에준오피스’를 설치합니다. 비와 코·쿠사츠 캠퍼스에는 산관학 제휴를 통해 최첨단 연구를 위한 테마별 연구센터를 다수 철시하여 ‘테크노콤플렉스’라고 불리우는 큰 연구거점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래에 행해온 교원과 개별 기업간의 제휴라고 하는 일본의 산학관계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같은 학문의 벽을 넘어서 수 있는 복수의 연구분야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등과도 쌍방관계를 폭넓게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구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준 바 있는 미국 싱크탱크 「아서·D·리틀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통산성 조사 「산학 제휴로부터 본 미일 기술에 대학의 비교·평가」(1996년 4월)에 있어서도 리쓰메이칸대학이 일본내 대학중에서 제1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서도 아시아태



평양지역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와 취직 등을 연결한 공동체제를 중시할 방침입니다.

「리쓰메이칸」(立命館) 명칭의 유래

「리쓰메이」(立命)라고 하는 명칭은 중국 고전인 『맹자』의 진심장(盡心章) 1절에 있는 “夭壽不貳，脩身以俟之，所以立命也”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인간은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모두 천명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은 자기 몸의 수양(공부)에 힘쓰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쓰메이칸」이라는 학원 명칭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팽창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네트워크

각국 방문 그룹의 보고내용으로부터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 협력의사를 표명한 고등학교가 금년 3월로써 50개교 돌파!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루어진 고등학교 방문을 포함, 올 2월까지 협력의사를 표명한 고등학교가 40개교를 넘어서, 금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방문을 합치면 50개교를 돌파할 전망이다. 금년 2월에 새로이 방문한 고등학교로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등 6개교와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남산여자고등학교 등 8개교, 부산의 부산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등 5개교이며, 도합 19개교가 협력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제주, 광주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 중에 있다.

●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한국내 협력고등학교 일람표

학교명	所在地		
梨花女子外國語高等學校	서울特別市中區巡和洞1-1	西仁川高等學校	仁川廣域市西區黔岩洞246
京畿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南區三城洞74	慶北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區黃金1洞9
慶福高等學校	서울特別市鍾路區青雲洞89-9	慶北女子高等學校	大邱廣域市中區南山1洞714-2
서울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瑞草洞1526-1	慶信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洞汎魚洞100
中東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南區逸院洞618	啓聖高等學校	大邱廣域市中區大新洞277
徵文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南區大峙洞952-1	南山女子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區壽城1街96-16
世和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盈浦洞753	能仁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區池山洞800
世和女子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盈浦洞753	大邱女子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區汎魚洞238-41
現代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南區狎鷗亭洞425	貞和女子高等學校	大邱廣域市壽城區上洞80
開浦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南區開浦洞173	釜山高等學校	釜山廣域市東區草梁4洞806
良才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瑞草洞1376-4	東萊高等學校	釜山廣域市東萊區漆山洞328
尚文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方背洞1000-1	慶南高等學校	釜山廣域市西區東大新洞3街1
永東高等學校	서울特別市南區青潭洞23-4	東萊女子高等學校	釜山廣域市金井區釜谷3洞 山7-1
養正高等學校	서울特別市陽川區木6洞911-2	南星女子高等學校	釜山廣域市中區大廳洞1街10
信一高等學校	서울特別市江北區彌阿洞山13	釜山大學教師範附屬高等學校	釜山廣域市金井區釜谷2洞山42-7
盤浦高等學校	서울特別市瑞草區盤浦洞30-19	大淵高等學校	釜山廣域市大淵3洞670-4
大元高等學校	서울特別市城東區中谷洞3-18	培正高等學校	釜山廣域市南區門牌4洞430
五山高等學校	서울特別市龍山區普光洞168	馬山中央高等學校	慶尚南道馬山市合浦區新月洞33-60
慶熙高等學校	서울特別市東大門區里門洞1	晉州東明高等學校	慶尚南道晉州市上大洞304-4
富川高等學校	京畿道富川市素砂區松内洞437	慶尚高等學校	慶尚南道昌原市道溪洞513

정몽준씨(울산대학교 이사장)가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취임!

울산대학교 이사장이며 FIFA 회장이기도 한 정몽준씨가 금년 2월 20일, 리쓰메이칸과 울산대학교와의 협정체결자 방문한 사카모토(坂本) 부총장(아시아태평양대학 학장 예정자)의 요청으로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취임을 험하게 수락했다. 울산대학교 관계자와 다수 몰려온 매스컴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협정조

인식에서 울산대학교의 구본호 총장은 보고를 통해 '매우 기쁜 일'이라고 했다.



'매우 훌륭한 구상이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동아제약·강신호 회장(정경련 부회장)을 방문.

김정현 객원교수는 금년 2월 19일, 전경련 부회장이며 한국재계의 종친인 동아제약 강회장을 서울 본사로 방문해 아시아태평양대학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 초반에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 관한 비디오가 상영되었고, 그 후 신대학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회장은 협력을 약속하며, '아주 훌륭



한 구상이다. 현재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나 필요하다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했다.

한국에서 여섯번째 협정교가 되는 울산대학교와 협정을 조인



울산대 자매결연

울산대 구본호 총장(이하 울산대)이 20일 오후 교내본관 3층 회의실에서 일본 교토시 6대 명문 사학인 리쓰메이칸대학 사마모토 부총장과 자매결연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로써 울산대는 7개국 16개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日本 立命館學園의 국내 협정대학

서울대학교

延世대학교

高麗대학교

梨花女子대학교

慶熙대학교

蔚山대학교



URL <http://www.ritsumei.ac.jp/kic/a31/>
E-mail : ritsapu@ritsumei.ac.jp

Rits
A P U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우편번호 603-77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기타쿠 도지인 기타마치 56-1
(日本國京都府京都市北區等持院北町56-1)
학교법인 리쓰메이칸(學校法人 立命館)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개설사무국 국제과
Tel: 075-465-8370 +81-75-466-8370
Fax: 075-465-8371 +81-75-465-8371

「크리스마스, 겨울의 Hanabi 판타지아」 (벳푸시)행사에 리쓰메이칸대학생이 참가- 응원단이 도민 · 시민과 교류

1997년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오이타현 벳푸시(大分縣別府市)에서 개최된 「크리스마스, 겨울의 Hanabi 판타지아」 행사에 리쓰메이칸대학의 응원단인 「치어리더부」 와 음악서클인 「취주악부」 가 출연했습니다. 이 행사는 15만명 이상의 관객이 몰리는 벳푸시의 겨울 풍물시로서 이번이 4년째가 됩니다. 지난해는 본교로부터 경음악부(Jazz)가 참가했습니다. 「시민과 일체가 되어 즐거운 무대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치어리더부와 취주악부 양 서클은 이 날을 위해 특별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송 등을 소재로 한 화려한 댄스와 경쾌한 연주로써 행사를 성대히 치루었습니다.

오이타 · 벳푸 사무소에서 유학생 숙사 보증에 관한 학습 세미나 개최

1998년 2월 9일 리쓰메이칸 벳푸사무소에서는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의 개교를 앞두고 제2차 학습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현(縣) · 시(市)와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설치기성동맹회 관계자, 그리고 국제교류 불란티어 시민그룹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학습 세미나에는 재단법인 후쿠오카국제교류협회의 다카마쓰 마사카즈(高松正和)씨가 강사로 초빙되어 「유학생 숙사 보증에 관하여 - 후쿠오카지역 유학생교류추진협의회의 대응 방침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참가자로부터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팽창하는 리쓰메이칸인터넷내셔널 · 아카데믹 · 네트워크

리쓰메이칸대학과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이 체결하고 있는 해외 협력협정체가 금년 3월로써 50개 기관을 넘어섰습니다. 뉴스레터 제1호에서 46개 기관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인도의 테리대학과 자바하랄 · 네루대학, 베트남의 교육훈련부와 후에대학, 태국의 국립개발행정연구원과 새로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立命館아시아태평洋大學 韓國事務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5-8
동일빌딩 802호
Tel: 82-2-568-8288 / 568-8289
Fax: 82-2-568-8260